지상법석

팔만사천 번뇌 낳아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말을 베푸는 것은 나를 위한 투자이고 복짓는 길입니다"

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이론만 알고 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는 이론을 알면 그 아는 것 이상으로 실천해야 하고 실천이상으로 삼매를 경험해야 합니다. 삼매와 지혜를 한꺼번에 닦아야 한다고 하는데 지혜라는 것은 분명히 깨어있고 떠돌아 다니지 아니하고, 어디 걸리지 아니하는 분명한 마음, 고요한 가운데 광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추호도 번뇌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마음을 가지려면 내 마음자세가 어떤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의식만 보고 판단합니다. 의식만 보는 것은 망상과 번뇌에 걸려서 반드시 인과응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과응보는 누구나 분명히 받게 되지만 마음자세를 보고 그 의식을 일으키는 사람은 때에 따라 적절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자기가 지어 온 업은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내 앞에 나타나는데 내가 그 과보를 감당할 힘이 생겨 있으면 그것은 그 닥쳐오는 과보가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 과보를 감당할 능력이 없으면 꼼짝없이 당하게 됩니다. 그럴때는 지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괴로워 어쩌지 못할 때에라야 종교에 귀의 해 보기도 하고 어디가서 점을 친다 하며 허덕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불멸한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삶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강물이 영원히 흐르는 것 같지만 그 속의 물은 항상 새롭습니다. 인생이란 전체를 말하자면 그 속의 개개인은 새롭게 변해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분명하면 내 자신이 언제든지 창조의 신이 될 수 있고 자신에게 닥치는 상황이나 경우를 척척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도 불도 마음의 일부며 그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고요하게 비어 있으면 살아가는 것이 생존경쟁이 아니라 원만한 조화속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청년이 나를 찾아와서 "스님, 저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참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잘되지 않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분하게 생각하니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하더군요. 그래서 억울함을 참는 것은 대단히 어려우나 억울한 마음을 관(觀)하여 마음의 근본이 없는 것을 터득하기는 쉬운 것이다. 그러니 앉아서 깊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하면서 상처 입은 억울한 마음을 관하여라. 너를 억울하게 한사람이나 그 동기를 생각하지 말고 단순히 성실하게 관하면 그 상처는 순식간에 없어질 것이다. 몸과 마음과 호흡이 일치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조용하여지며 자연히 그 억울함에 대항할 지혜가 나타난다고 일러 준 적이 있습니다.

마음의 그릇이 허공처럼 커서 덕을 이루는 것인데 번민하는 마음을 그때그때 관하여 깨끗이 없애는 정진을 하므로 실상인 묘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명백하고 정확하지 않으면 속아서 항상 괴로움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속는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속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한 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방세계가 마음의 조작으로 되어 있음을 알면서도 당하는 것입니다. 마치 중천에 떠 있는 밝은 해는 항상 제자리에 있으나 아침이면 동쪽에서 뜨고 저녁이면 서산에 지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다만 지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마음은 결코 번민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지만 내 자신이 속기 때문에 가지가지의 마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있는 마음에 속지 않으면 모든 번뇌는 보리(지혜)로 승화합니다. 그래서 항상 실상묘법과 차별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는 어떤 경우와 환경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이겨나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능력이 바로 마음쓰는 방법입니다. 속지 않는 마음은 쉽게 실상을 알아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마음은 판단력을 잃고 번민에 잠깁니다. 이때는 괴로움이 그림자처럼 생깁니다.

괴로움을 담고 있는 심정은 무게로 느끼게 되고 무게 있는 마음은 답답하고 때로는 공포, 그리고 외로움 시기 질투 절망 등 가지 각색의 번민이 일어 나서 자신이 사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기능을 상실하고 이것을 거듭하면 윤회라고 하고 여기에 괴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복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는 이 삼독심(탐 진 치)을 삼학(계 정 혜)으로 승화시키는 정진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바로 삼보를 믿는 마음에 정성이 어려야 하는데 정성어린 마음은 삼매에 드는 길이고 삼매에 든 마음은 삼독심을 승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것은 밝은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기도, 참선, 염불, 간경으로 삼매에 드는 마음은 발심과 정진에 따라서 차원이 다르나 결국 해탈의 문에 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불교를 실천 정진하는 종교라고 하는가 하면 깨달아 그 마음이 성숙해지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에 뚜렷한 의지가 서서 밝아 있는 것입니다. 한국사람은 한국인의 정신이 분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 어떠한 경우나 환경이 오더라도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영향에서 벗어나 원만한 가치와 능력을 발휘하는 뚜렷한 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을 수지독송하는 사람에게는 보살의 경지처럼 광대한 능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는 실상을 볼 줄아는 힘이 필요합니다. 실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상을 보지 못하면 상대에 따라 보는 것에 따라 번뇌가 일고 내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마음이 일어나 괴롭게 됩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는 사람은 이러한 모든 마음이 끊어지고 조촐하고 정직한 대화를 하므로 몸과 마음에서 향이 납니다 그 마음에서 나는 향기를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의 향기를 맡지 못하면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속아 넘어갑니다.

마음에서 향기를 내는 것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서 다른 이를 행복하게 해주면 좋지 않은 마음이 저절로 없어져 향이 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 어떤 비구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당신은 성불할 것입니다"라고 인사를 하고 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더욱 성불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해주면 좋은 인과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수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한 것입니다. 마음이 단순할 수록 수행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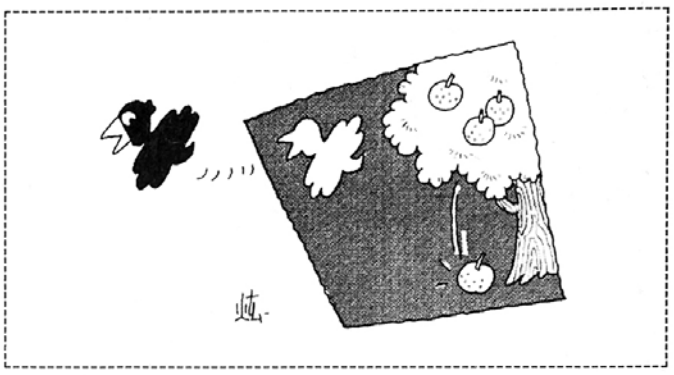
아름다운 말 행동, 생각을 단순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이 영원히 복을 짓는 지름길입니다. 죽어서 열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열반해야 올바른 투자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투자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좋은 말을 하면 바로 그것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실상을 아는 사람은 물질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물질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마음이 바로 서면 물질이 절로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의 향기를 안 내고 아상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상을 버리는 첫 관문으로 아름다운말, 아름다운 생각,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짓는 것이고 나를 위하여 투자하는 길입니다.

'무게있는 마음'에서 윤회반복 "마음을 비워라"

"불법대로 실천 지혜생기면 매사에 걸림없어"

"실상을 보는 사람에게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밝은 빛 있으면 어두움이 사라지는 이치입니다"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㉝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⑳

시간과 공간

추상적 관념처럼 보이나 물질과 같아 '절대시공간 부정' 상대성이론 출발점

사람들은 우주와 물질에 관해 얘기할 때 보통 시공간(時空間)은 생각지 않는다. 물리학자들도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상대성이론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시공간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았다. 시간(時間)과 공간(空間)을 한데 묶어 시공간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적 경험의 세계에서 볼 때 시간과 공간은 서로 관련이 없고 물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시간은 공간이 어떻게 되었던 아득한 과거에서부터 미래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고 시간을 측정하는 사람의 상태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인다. 또한 동시성(同時性)도 의심없이 우주 어디에나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이순간 미국에 있는 내 아버지는 무얼하고 계실까? 누구도 이런 질문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않는다. 이순간이라는 것이 나에게나 아버지에게나 또다른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정의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지고 흘러가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상의 한점인 어떤 한 순간마저도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고 경험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간과 마찬가지로 공간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나에게 100m인 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100m이며 물질과 상관없이 무한히 넓게 펴져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시공간은 물질이 있건 없건 무한히 펼쳐져 있는 관념적인 것이다. 공간이 비어 있어도 거기에서 공간의 길이를 생각할 수 있고 물질로 꽉 차 있어도 똑같은 길이를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추상적인 관념이 시공간인 것처럼 보인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시공간을 절대시공간이라고 부른다. 시공간은 길이를 잴 수 있다는 뜻에서 물리학적인 개념이지만 '사랑'이나 '슬픔' 같은 비물리학적인 추상적 개념보다 더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시공간의 개념이다. 사랑이나 슬픔은 물질처럼 존재를 느낄 수 있는 실체가 아니지만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슬픔과 기쁨을 느낌으로써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뜻에서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공허한 것은 아닌데 절대시공간은 물질에 아무런 영향을 주고 받지 않는다는 뜻에서 공허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무런 형체도 없고 물질과 영향을 주고 받지도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공간이 형체도 있고 물질과 영향을 주고 받을뿐 아니라 물질처럼 태어나기도 하고 없어질 수도 있으며 자연을 바라보는 사람의 운동상태에 따라 시간이나 공간의 길이도 달라진다는 것을 밝힌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이 있는데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졌다는 사건이 있다면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까마귀가 먼저 날고 그 다음 배가 떨어지는 것, 까마귀가 날고 배가 떨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 것, 배가 먼저 떨어지고 다음에 까마귀가 난 것 세가지 경우이다. 절대시공간의 개념이 옳다면 세가지 경우 중 하나만 옳겠지만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세가지 모두 옳다. 배나무 과수원의 동쪽 끝에 있던 까마귀가 날 때 서쪽 끝에 있는 배가 떨어지는 것을 과수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보고서 "까마귀가 나는 것과 배가 떨어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주장한다면 분명이 그 사람에게는 동시에 일어난 일일 것이다. 그러나 동쪽에서 서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본다면 배가 먼저 떨어지고 까마귀가 나중에 날은 것처럼 보인다.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본다면 까마귀가 먼저 날고 배가 나중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셋중에 누가 옳다는 법이 없다. 셋 다 옳다. 이렇게 하나의 사건에 대해 세가지 해석이 다 옳다는 것을 분석한 것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의 출발점이 된다. 절대시공간이 붕괴되고 시공간이 물질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상대성이론이 보여준다.

시공간은 정말 공(空)한 것처럼 보이므로 무색이라 할 수 있으나 그것은 물질과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티벳승왕 달라이 라마 초청

인류평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대법회

■목 적
가. 국제대법회를 통하여 우리 불교도들의 단합된 의지를 천명하고,
나. 인도공화국과 우의드모, 교류확대
다. 한국불교의 위상제고
라. 2002년 아시안게임 및 월드컵 대회에 대한 국민적 열기 고취

■일시 및 장소
가. 불기 2540(1996)년 10월 21일 오전 9시 (한국시간 낮 12시)
나. 인도공화국 뉴델리시 특설법회장

■주 최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BBS불교부산방송

■특별후원
인도공화국 부산·경남 명예총영사관, 인도공화국 한국불교협회

■후 원
부산불교신도회, (주)대한불교신문, 불교신문, 주간불교, 현대불교, 법보신문

■특별협찬
대한항공

■행사내용
-. 인류평화와 환경보전을 위한 국제대법회
-. 부처님 사성지 순례 및 관광
-. 티벳트 승왕 달라이 라마 친견
-. 무칠란다 용왕못 방생

■참가대상
가. 전국원로대덕스님 다. 각사암 주지스님 및 신도
나. 신행단체지도자 라. 인도공화국 스님 및 교민불자

■출발일정 및 비용
가. 1진 출발 10월 13일~22일
2진 출발 10월 20일~29일 (9박 10일)
나. 참가비용 : 1인당 ₩1,480,000원
다. 교통편 : 대한항공 전세기(부산에서 직항)

온라인 — 국민은행 : 115-01-0338-749
부산은행 : 040-01-030468-8 (예금주 : 불교연합회)

■수속대행여행사
(주) 명문여행사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4가 30-9 TEL : (051) 462-1231

■문의처 : 부산광역시불교연합회 ☎(051) 867-0501 · BBS불교부산방송 ☎(051) 644-5114

일 정 표

구분	1 진(10월 13일~22일) 지 역				
A팀	10/13 일	10/14 월	10/15 화	10/16 수	10/17 목
	부산 뉴델리	뉴델리 아그라	아그라 바라나시	바라나시 부다가야	부다가야 라지기르 나란다 파트나
	10/18 금	10/19 토	10/20 일	10/21 월	10/22 화
	파트나 바이살리 고락프르	고락프르 룸비니 바릅프르	바릅프르 랄나우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방콕 부산
B팀	10/13 일	10/14 월	10/15 화	10/16 수	10/17 목
	부산 뉴델리	뉴델리 랄나우 바릅프르	바릅프르 룸비니 쿠시나가르	쿠시나가르 바이살리 파트나	파트나 나란다 라지기르 부다가야
	10/18 금	10/19 토	10/20 일	10/21 월	10/22 화
	부다가야 바라나시	바라나시 아그라	아그라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방콕 부산
C팀	10/13 일	10/14 월	10/15 화	10/16 수	10/17 목
	부산 뉴델리	뉴델리 파트나 바이살리	파트나 나란다 라지기르 부다가야	부다가야 바라나시	바라나시 쿠시나가르
	10/18 금	10/19 토	10/20 일	10/21 월	10/22 화
	쿠시나가르 룸비니 바릅프르	바릅프르 랄나우 아그라	아그라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방콕 부산
D팀	10/13 일	10/14 월	10/15 화	10/16 수	10/17 목
	부산 뉴델리	뉴델리 오랑가바드	오랑가바드	오랑가바드 잘가온 브릴	브릴 산치 브릴
	10/18 금	10/19 토	10/20 일	10/21 월	10/22 화
	브릴 아그라	아그라	아그라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방콕 부산

구분	2 진(10월 20일~29일) 지 역				
E팀	10/20 일	10/21 월	10/22 화	10/23 수	10/24 목
	부산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아그라	아그라 바라나시	바라나시 부다가야
	10/25 금	10/26 토	10/27 일	10/28 월	10/29 화
	부다가야 라지기르 나란다 파트나	파트나 바이살리 고락프르	고락프르 룸비니 바릅프르	바릅프르 랄나우 뉴델리	뉴델리 방콕 부산
F팀	10/20 일	10/21 월	10/22 화	10/23 수	10/24 목
	부산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랄나우 바릅프르	바릅프르 룸비니 쿠시나가르	쿠시나가르 바이살리 파트나
	10/25 금	10/26 토	10/27 일	10/28 월	10/29 화
	파트나 나란다 라지기르 부다가야	부다가야 바라나시	바라나시 아그라	아그라 뉴델리	뉴델리 방콕 부산
G팀	10/20 일	10/21 월	10/22 화	10/23 수	10/24 목
	부산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파트나 (바이살리)	파트나 나란다 라지기르 부다가야	부다가야 바라나시
	10/25 금	10/26 토	10/27 일	10/28 월	10/29 화
	바라나시 쿠시나가르	쿠시나가르 룸비니 바릅프르	바릅프르 랄나우 아그라	아그라 뉴델리	뉴델리 방콕 부산
H팀	10/20 일	10/21 월	10/22 화	10/23 수	10/24 목
	부산 뉴델리	뉴델리	뉴델리 오랑가바드	오랑가바드 잘가온 브릴	오랑가바드 잘가온 브릴
	10/25 금	10/26 토	10/27 일	10/28 월	10/29 화
	브릴 산치 브릴	브릴 아그라	아그라	아그라 뉴델리	뉴델리 방콕 부산

※상기 일정은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